



# RAIL WARS!

일본국유철도공안대

1

토요다 타쿠미 | 지음  
바니아600 | 일러스트

第一場

## 목차

M001	느긋한 생활, 출발 진행 .....	2
M002	학교, 폐색 주의 .....	???
M003	연수, 장내 진입 .....	???
M004	배속, 정차 .....	???
M005	국철 케이힌토히쿠 선, 제한 해제 .....	???
M006	국철 추오 선, 출발 경계 .....	???
M007	토쿄 역, 긴급정차 .....	???

## M001 느긋한 생활, 출발 진행<sup>1</sup>

오오오오오~

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면에 빠져들었다.

절도 있는 동작으로 일제히 앞으로 나가는 은색 방패.

그에 대항하는 그룹은 움직이지 않고 등 뒤의 커다란 오렌지색  
깃발만이 펄럭펄럭 나무꾼다.

결코 판타지 속 얘기 아니다. 현실, 리얼이다.

약간 곡면을 띤 두랄루민제 방패는 뒤에 숨어서도 앞을 볼 수 있도록  
눈 부분만 네모나게 뚫려 있고, 정면에는 국철의 심볼 마크 “동륜”이  
자랑스럽게 빛난다.

여기는 타마치(田町)에 있는 국철 차량 센터로, 그 한 구석을 과격파  
그룹이 점거하고 있다.

거기에 대항하여 국철 내의 경찰 조직 “철도공안대”가 출동해서  
대치하고 있다.

깡!

날아온 돌이 방패에 맞아 화려한 금속음이 울린다.

으와, 맞으면 아프겠다…….

방패 표면은 약간 움푹 들어갔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

<sup>1</sup> 일본에서 열차를 타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지적 환호 중 하나. 지적 환호란 표지나 기기류 등을 볼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소리 내어 읽어 재확인하는 안전 절차를 말한다. “출발 진행”은 역 출구에 있는 “출발” 신호기가 “진행” 신호임을 나타내며, 여기서 “진행”은 신호에 따른 속도 제한 없이 열차가 나아가도 좋다는 의미이다.

돌을 맞은 곳 근처의 방패가 일제히 한 걸음 옆으로 이동해서 좁은 통로가 생겼다.

……여, 여자?

열린 통로에서 새하얀 제복을 입은 미인이 느긋이 걸어 나왔다.

눈에는 똑똑해 보이는 안경을 걸치고, 새빨간 리본으로 한 다발로 꼭 묶은 검은 머리는 바람을 맞고 사뿐히 날렸다.

우락부락한 남자가 옆에서 검은 확성기를 그 사람에게 넘긴다.

지금 돌을 던지면 맞을 거 같은 거리인데도 이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그룹은 굳어 버렸다.

뭐지……이 사람은…….

나도 분위기를 타서 그런지 한번에 폭 빠져들고 만다.

빠이이이이이이이이잉.

스위치를 누른 순간 큰 하울링.

그다지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바로 음량을 조절하고는 후후하고 마이크 테스트를 하며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다.

이렇게 되면 실수한 모습마저 멋있다.

“열차 방해 그룹에게 고한다! 당신들이 있는 곳은 차량 센터 내의 선로 위이며, 국철에 대한 불법 침입에 해당한다. 즉각 물러나라.”  
정중하기는 하지만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계속한다.

“또한!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실력으로 배제하겠다!”  
돌을 던지던 그룹 사이에는 명백히 동요하는 물결이 퍼지고, 이대로 아무도 받아치지 않으면 항복할 것 같은 분위기다.

스물 몇명으로 이루어진 그룹 사이에서 쑥덕쑥덕하고 회의가 시작된다.

그러던 중 갑자기 총알 하나가 공기를 갈랐다.

파앙! 썩애애액!

심약해 보이는 청년이 긴장감을 견디지 못하고 에어건의 방아쇠를 당겼다. 다소 개조를 한 것 같은 그 총은 사람한테 맞아도 죽지는 않겠지만, 얼굴에라도 맞으면 크게 다칠 것 같다.

떨리는 손으로 쏜 총알은 여자의 발 근처에 맞고 조그맣게 흠먼지를 날렸다.

으악!?! 썩, 썩잖아!

바로 옆에서 방패 두 장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 팟하고 뛰어나왔다.

하지만 여자의 키는 방패보다도 약간 커서 목 위는 아직 보였다.

그 사람은 무서워할 줄 알았더니 예상 밖으로 히죽 웃고 있었다.

“이, 이! 세, 세금 도둑. 국철은 얼른 분할민영화하라!”

사격한 청년은 돌이킬 수 없는 공포 타인지 떨면서 힘껏 외쳤다.

그게 신호인 양 한 때 조용했던 그룹은 되살아나서는 다들 저마다

“국철 반대!” “민간으로 이관하라!” 하는 식으로 소리친다.

일본 최대의 철도회사인 국철은 국가가 경영하고 있다.

메이지 시대에 시작된 일본의 철도 사업은 국가가 주도한 까닭에,

지금도 전국의 주요 철도는 여전히 국철이다.

저들이 하는 말은 전국 철도를 혼자 다루는 맘모스 회사 국철을

토막내서는, 그것도 민간 회사로 만들라는 거다.

그런 거 ……절대 안 될 걸.

짱!

그룹은 선로에 깔린 돌을 잇달아 철도공안대를 향해 던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수도 적고 힘도 약했지만 투석과 함성은 점점 커진다.

“그래! 그래!”

“돌아가라! 국철의 개!”

깡, 깡…….

꽤 많은 돌이 두랄루민 방패를 두드린다.

돌이 얼굴에라도 맞으면 어찌려고?

철도공안대에서는 여자와 마이크를 건넌 남자가 무언가 속닥속닥 얘기를 하고 있다.

소리는 작았지만 살짝 들렸다.

“이제 한계네요……. 더 했다간 이쪽에도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여자는 안경 너머로 그룹을 노려보았다.

“그렇군. 거기다……벨러스트를 투석에 쓰다니……이 놈들, 용서 못 해.”

그렇게 말하고는 가슴을 확 펴더니, 한번 더 마이크에 대고 외친다.

“너희는 완전히 포위됐다! 쓸데없는 저항 말고 양전히 항복하라!”

그 목소리에 한 순간은 공격이 멈췄지만,

“시, 시꺼!”

라는 목소리에 아까보다도 거센 투석 공격이 재개되었다.

“어쩔 수 없지…….”

여자는 허리에 매고 있던 세모난 홀스터의 뚜껑을 딱하고 열고 안에서 서부극에라도 나올 듯한 커다란 리볼버를 꺼내서는 하늘을 향했다.

타아——양!

지, 진짜야!?

안전의 나라 일본에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







땅이 울리는 듯한 반례로 일대의 분위기가 한 번에 바뀌었다.  
두 단으로 이루어진 일직선의 파도가 여자를 선두로 그룹에 다가간다.  
척척척척…….

동작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고, 열은 한 치 흐트러짐 없이  
달려나간다.

으와, 뭔가 찢는다.

당하는 쪽의 그룹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졌다.  
어찌저찌 버터내고 저항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도망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센터 밖에는 경찰차의 경광등이 몇 십 개나 반짝이고,  
경찰관이 울타리 밖에서 잔뜩 버티고 있다.

그러니 도망친 사람은 죄다 붙잡혔다.

공안대는 도망친 사람에게는 눈길도 안 주고 어찌저찌 버터내고  
투석이나 개조 에어건으로 대항하려 하는 그룹의 잔당을 향해 한  
번에 돌진한다.

선두를 여자가 달리는데도 신기하게 돌이나 탄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룹 바로 앞에 도착하자 총을 높이 들어 지시를 내렸다.  
“포위 전개!”

한데 뭉친 남자만의 절규를 신호로 제복 집단은 좌우로 전개되었다.  
“위어어어”

“전원 확보!!”

원을 그리듯 둘러싸던 집단이 한번에 안쪽으로 밀어붙여 간다.  
간단히 말하면 엄청난 러시 아워다.  
이런 상태에선 움짱달짝 못 할 거다.  
360 도에서 한번에 방패를 써서 뭉개고 있으니까 말이다.  
이렇게 되면 딱히 경봉 같은 무기를 안 쓰고도 안에 있는 인간은

무력화되어 간다.

달각달각달각달각…….

두랄루민제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와중에 그룹의 인간이 한 명 한 명 끌려 나온다.

밖으로 나온 인간은 이미 진이 다 빠져서는, 양 팔을 붙들려 경찰로 넘겨진다.

이렇게 사람을 팍팍 줄여가더니 이윽고 전원을 붙잡아 버렸다.

“이, 이까짓 게 뭐라고! 두고 봐라, 국…….”

똑, 치——.

응!? 뭐지?

그룹의 리더 같은 인간이 단말마 같은 상태로 무언가 연설을 하려 한 데서 스마트폰의 영상이 끊어져 버렸다.

통신 상태가 안 좋은 건가 하고 화면을 다시 봤지만 안테나는 깔끔하게 세 개 떠 있다.

뭐야. 끝까지 보여달라고.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계속 이걸 갖고 사건을 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보고 있던 건 현장의 생중계 영상이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나온 TV 영상이 아니라, 국철의 분할·민영화를 목표로 하는 과격파 조직 “RJ”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영상이다.

역시 범인 쪽에서 보는 영상은 박력이 엄청났다.

주르륵 늘어선 감색 제복에 두랄루민제 방패를 든 철도공안기동대.

이어 범인을 설득하는 하얀 제복을 입은 여자, 마지막에는 신축식 경봉을 휘둘러 귀신 같은 기세로 그룹을 향해 돌격해오는 사람의 모습이 모두 찍혀 있었다.

하지만 범인 그룹의 사이트에서 중계하는 영상이라 그들의 주장 코멘트인 “국철 분할 민영화!” “이 세금 도둑”이 가끔 화면을

가로지르는 게 짜증나긴 한다.

“참 힘들겠네……양쪽 다 말이지.”

이게 내 솔직한 감상이다.

나는 단순히 야구의 난투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심정으로 보고 있었을 뿐 전혀 그들의 주장에는 관심이 없다.

이 범인들은 여기서 뭘 하고 있었냐 하면, 국철의 열차를 방해하고 있었다.

차량을 격납해 두는 차량 센터의 출구를 점거해서 열차를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명분으로는 “국철은 세금 도둑이니까 제재를 가해야 한다”라고 한다. 이런 짓을 한다고 일본 전국에 걸친 거대한 철도 조직이 없어지리라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하긴 테러 목표가 된 철도에 타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

그들로서는 국철의 인기가 떨어지도록 수작을 부리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겠지.

뭐 내 알 바 아니다만.

내 이름은 타카야마 나오토(高山直人), 키류(桐生) 철도 고교 2학년이다.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인데, 학교 이름만은 조금 신경 쓰이지?

키류 철도 고등학교는 일반적인 공부는 어느 정도 해 두고 고교 3년간 충실히 철도나 교통에 관한 산업 교육을 행하여 철도계에서 바로 전력이 될 학생을 육성하는 학교다.

그래서 보통과는 없고 여객수송과와 기관정비과밖에 없다.

즉 진짜배기 철도 전문 고등학교라는 거다.

나는 어릴 때부터 전철이 좋아서 운전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런 건 어릴 적 꿈으로만 놔두는 법이지만 결국 나는 철도 취미를  
진로로 고르고 말았다.

하지만, 내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것 말고는 평범한 것 같다.  
초등학생 때에는 소년 야구도 했었고, 용돈을 전부 철도 취미에  
쓰지도 않는다.

신형 전철이 달린다고 해서 다른 놈들처럼 학교에 안 나오지도 않고  
말이지.

유명한 노래나 만화도 잘 알고 있다.

거기다, 여자애들이랑도 나름 잘 지내고 있어…….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뭐 그런 거지”란 정도지만 말야.

철도 전문 고등학교라면 남자투성이인 줄 알지?

근데 사실은 여자도 많이 다니고 있어.

키류 철도 고등학교는 오래된 학교로 오랫동안 남학교였어.

그런데 말야, 요즘에는 역무원이나 객실 승무원, 차장, 그리고  
운전수까지 여성이 많이 일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10년 전인 2002년부터는 여자도 입학할 수  
있게 되고 지금은 여자도 남자도 반반쯤 될 정도로 세력이 확대됐어.  
스마트폰을 소파에 내던지고, 나는 TV를 켰다.

이미 소동은 끝난 모양이고, 총을 쏘던 여자가 인터뷰에 대답하고  
있었다.

인터뷰 화면 아래에는 “일본국유철도 도쿄 공안기동대 대장 고노  
히토미(五能瞳)”라는 자막이 흐른다.

휴대폰 화면은 화질이 나빠서 잘 몰랐는데,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전환  
때 아버지가 괜히 들떠서 대형으로 바꾼 TV를 보니, 고노 대장은  
클로즈업에도 견딜 수 있는 썬 미인이었다.

안경 안쪽에는 차갑고 길게 찢어진 눈이 있고, 분홍빛 도는 흰 피부,

그리고 키가 훗칠하고 손발은 가냘프다.

저렇게 큰 총을 다룰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하얀 와이셔츠에 보라색 넥타이. 딱 끼는 타이트 스커트를 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가죽 부츠로 온 몸을 맵시 있게 빼 입고 있었다.

그런 난투가 있었는데도 어디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솔직히 저 모습은 서 있기만 해도 멋있다.

“저희는 손님께서 안전하고 즐겁게 열차를 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철은 서비스 제일.”

여기서 카메라로 시선을 옮기고 고노 대장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철도의 안전을 지키는 철도공안대는 ‘강하고, 올바르고, 친절하게’가 모토거든요.”

아까 보던 영상에 비칠 때랑은 완전히 다른 부드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여성 리포터는 고노 대장에게 의심하듯이 물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아까는 권총으로 위협사격까지 했다는 정보도 있고……그건 좀 지나치지 않았냐는 목소리도 방송국에 와 있는데요?”

하지만, 고노 대장은 전혀 기분 상하지 않고 명주실처럼 고운 긴 머리를 손으로 쓸어 내리면서 웃었다.

“그건 공포탄입니다. 운동회에서 ‘준비~ 땅’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어!? 정말……?

공포탄이 저렇게나 박력 있는 건가!?

이렇게 나오면 리포터도 계속 나갈 여지가 없다.

그 뒤엔 항상 그렇듯 “국철의 적자 체질은 문제가 아닌가?” 같은 뻘하디 뻘한 얘기가 나와서 중계도 거기서 끝나고 말았다.

“후우우.”